

사회통합 국민 인식의 분석과 정책적 함의¹⁾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Public
Recognition of Social Cohesion

정해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은 사회통합의 상태와 조건에 대한 국민의 상이한 인식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한 조건을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며 공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판단 기준에서 사회통합의 가치상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크게 네 집단으로 구분되는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평균적인 속성을 가지는 집단 외에 서로 신뢰하면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보수적 가치를 가진 집단,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생의 가치보다는 사회적 이동에 강조를 두는 집단, 분배 공정성을 강조하는 집단이 대표적이다. 이에 이 글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개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1. 들어가며

우리 사회의 분배 구조가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회통합’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지 10

여 년이 지났다. 그간 대통령소속사회통합위원회(2009~2013)가 활동했으며, 현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소속국민대통합위원회(2013~현재)가 활동 중이다.²⁾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

1) 이 글은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보고서의 2장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구성’의 일부를 재구성한 글임을 밝힌다.

2) 정해식(2014)은 박근혜 정부 들어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정책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사회통합(social cohesion)과 구분되는 국민통합(national cohesion)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민통합은 세대·계층·노사·문화 갈등을 극복하는 등 구성원 간의 통합과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정해식(2014), 국민통합의 개념과 필요성,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18호, p.7].

관으로, 기관 목표로 '사회갈등 극복과 역사와의 화해', '공존, 협력, 소통의 통합문화 정착', '국민적 통합가치 창출 및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신뢰 수준 같은 사회통합의 상태,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와 같은 격차와 빈곤율 등 사회통합의 조건에 해당하는 주요 지표의 측정 결과가 대중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도 잦아졌다. 이렇듯 여러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제반 사회 문제 해결의 지향점으로 '사회통합 제고'를 제시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한국 사회의 사회적 문제, 첨예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소개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통합은 점차 용례의 익숙함을 얻는 것에 반비례해서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단어가 되어 가고 있다. 즉, 이론적 정의를 떠나서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 사회통합과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사회통합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실제로 여유진 등의 국민통합의식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이념적 성향에 따라 '국민통합'이라는 용어에 대해 연상하는 바가 달랐다.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주로 연상하였고,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는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주로 연상하였으며,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는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을 주로 연상하였다.³⁾ 이러한 경향은 설문 내용을 일부 수

정한 이후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은 '헌법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은 '다양한 가치관이 서로 공존하는 것',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을 사회통합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⁴⁾ 거칠게 정리하면 진보-보수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사회통합의 의미를 1) 평등, 공평, 공존 2) 사회갈등 해결 3) 질서, 투명의 개념으로 세우고 있다.

우리 국민이 가치관에 따라 사회통합의 의미를 달리 설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 추론의 의도적 배제에 따라 사회통합과 관련한 정책 활동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공존, 협력, 소통의 통합문화 정착'이라는 목표는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고 있지만, 동시에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그러한 활동이 통합을 위해 얼마나 기여하는가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정교하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가치체계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또 그것이 형성된 사회경제적 기반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다름'에 대한 인정 가능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름의 원인을 알게 되면 공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쉽게 소통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여유진, 김미곤, 김문길, 정해식, 우선희, 김성이(2013). 국민통합의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2.

4) 국민대통합위원회(2015). 2015년도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리서치앤리서치. p.36.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설문을 기획한 것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 인식 조사(2014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2015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조사는 2016년 6~7월 중 실시하였으며, 전국 19세 이상~74세 이하 성인 남녀 3669명이 최종 응답하였다.

2. 한국인의 사회 인식: 사회통합의 하위 요소를 중심으로

가.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는 응답자에게 한국 사회가 어떠한 모습에 가까운지를 평

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설문지의 하위 항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통합 3요소 틀⁵⁾을 중심으로 배치하였다. OECD는 개발도상국을 정책 전파의 대상으로 사회통합이 발전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 하위 요소로 각각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을 제시한 바 있다. 이때 사회이동성에 대해서는 사회의 활력 정도와 장래 희망으로 구분하여 접근했다. 한편, 사회통합과 관련해 한국적 특성을 강조하는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갈등의 정도와 이를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능력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갈등의 실체와 무관하게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이 부각되는 한국의 특징을 고려하면 인식적 차원에서 갈등 사회인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이에 사회갈등과 관련한 문항을 추가해 <표 1>과 같이 모두 5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1.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조사 문항의 설계

개념 정의	설문 문항		개념 정의
배제 사회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배려와 포용의 사회	포용 사회
불신 사회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신뢰 사회
침체된 사회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역동적 사회
불안 사회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희망 사회
갈등 사회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협조 사회

주: 질문지는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라고 묻고, 설문 문항에 해당하는 질문을 배치해 11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음. 이때 개념 정의는 질문에 포함하지 않았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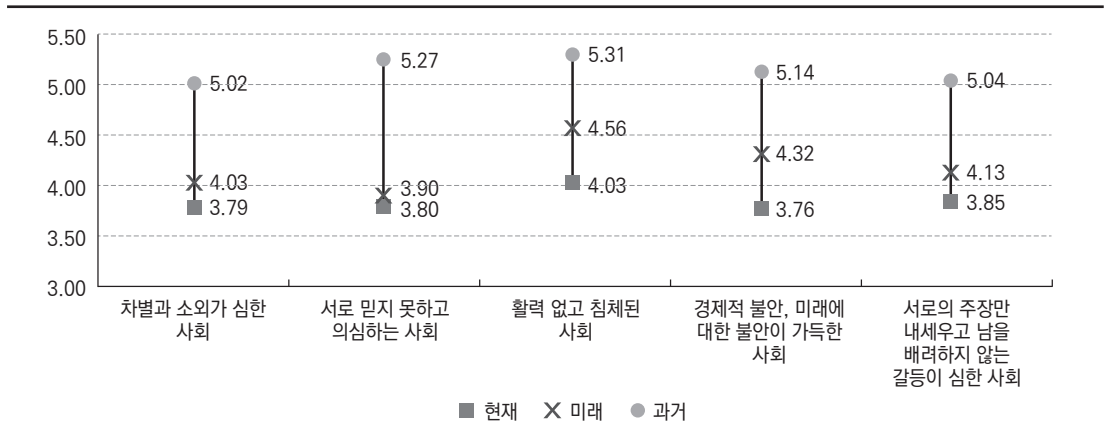
5) OECD(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Paris: OECD Publishing.

[그림 1]은 한국 사회를 현재, 10년 전 과거, 10년 후 미래 세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회고, 예측한 응답 결과이다. 우리 국민의 인식 구조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첫째,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배려와 포용의 사회’보다는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에 가까웠다(평균 3.79점). 그렇지만 10년 전 상황은 이보다 1.23점 긍정적이었다. 응답자들은 미래에 조금 더(+0.23점) 포용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 예측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둘째,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보다는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에 더 가까웠다(3.80점). 응답자들은 10년 전의 상

황은 이보다 1.47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미래에도 신뢰 사회로 크게 전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0.11점). 즉, 우리 국민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가 불신 사회로 크게 이동했으며, 앞으로도 큰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미래 사회의 긍정적 진전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것은 설문 문항 전체에서 확인되지만 특히 신뢰 영역에서 기대가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라기보다는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에 가까웠다(4.03점). 이 문항에서는 다른 문항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응답자들은 10년 전의 상황은 이보다 1.27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

그림 1.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제시함.

자료: 정해식, 김미경, 여유진, 김문길, 김문희,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 48.

6) 이스털린(Easterlin, 2001, p.473)의 정리에 따르면, 소득 수준과 주관적 만족도의 관계에서 증가한 현재의 열망(aspirations) 수준으로 과거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 대한 회고적 평가치는 더 낮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회 기준에 따라 과거 사회를 평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Easterlin, R. A.(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111(473): 465-484].

황이 미래에는 0.53점 개선될 것이라 보았다. 넷째,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보다는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에 더 가까웠다(3.76점). 이는 다섯 가지 질문 중 평가 결과가 가장 낮다. 응답자들은 과거에는 이보다 1.38점 정도 긍정적이었다고 보고, 장래에는 0.56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섯째,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보다는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에 더 가까웠다(3.85점). 이러한 평가는 10년 전에 비해 1.19점 부정적인 평가로 이동한 것이며, 미래에도 0.29점 개선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종합하자면 우리 국민의 인식 속에서 한국 사회의 모습은 과거에 비해 불신 사회, 불안 사회로 크게 이동했다. 한편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 중에서 불신 사회, 갈등 사회의 상황은 앞으로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나. 계층 집단에 따른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사회 인식 또는 평가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처한 현실에 어느 정도 바탕을 둘 수밖에 없다. 앞서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역시 현재 각자가 처

한 상황을 중심으로 과거에 대한 평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 각자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대한 응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집단 구분 중 하나가 주관적 계층과 이념 성향이었다.⁷⁾

[그림 2]는 주관적 계층에 따라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다른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는 계층별로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상황에 대한 평가치, 미래에 대한 예측치의 변화량을 측정하고, 이를 전체 평균과 비교해 제시하였다. 따로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예상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설문 문항에서 주관적 계층이 상층에 가까울수록 사회 평가는 양호해졌다.

주관적 계층이 하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과거를 현재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반대로 중간층 이상(중상층 및 상층 포함)⁸⁾인 경우에는 다른 계층에 비해 현재 대비 과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주관적 계층 수준에 따른 차이는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2]에서 살펴보면 하층 집단은 미래에 포용, 신뢰, 역동적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 집단은

7)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p.41)에서는 이 외에도 성별, 가구 소득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을 보여 주고 있는데, 연령대의 경우에는 U자 커브(즉, 40대가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음)를 보이지만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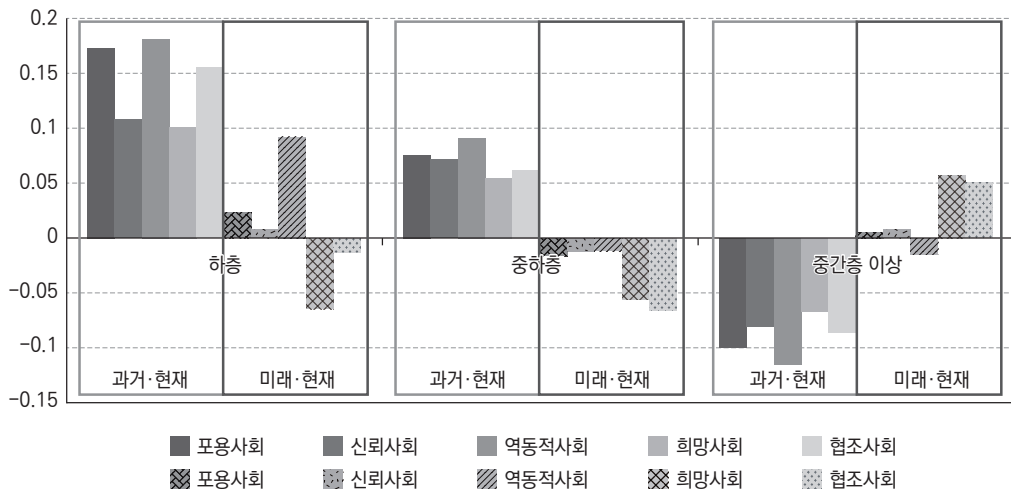
8) 응답자 중 186명(5.07%)만이 본인의 주관적 계층을 중상층 또는 상층이라고 응답하였다.

미래에도 희망, 협조 사회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하층 집단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어두운 편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층 이상 집단은 미래 사회가 희망 사회, 협조 사회가 될 가능성을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림 3]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이념적 성향에 따라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다른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한국 사회에 대한

그림 2. 한국 사회에 대한 시점별 비교 평가: 주관적 계층 집단별¹⁾



주: 1) 전체 평균 대비 집단별 상대 수준으로 제시하였음.
 2) '과거-현재'는 과거 상황에 대한 평가치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한 값임.
 3) '미래-현재'는 미래 상황에 대한 평가치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평가는 평균보다 양호하였다. 비교 결과는 주관적 계층 집단에 따른 구분과는 달리 하위 질문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특징적인 경향을 보이는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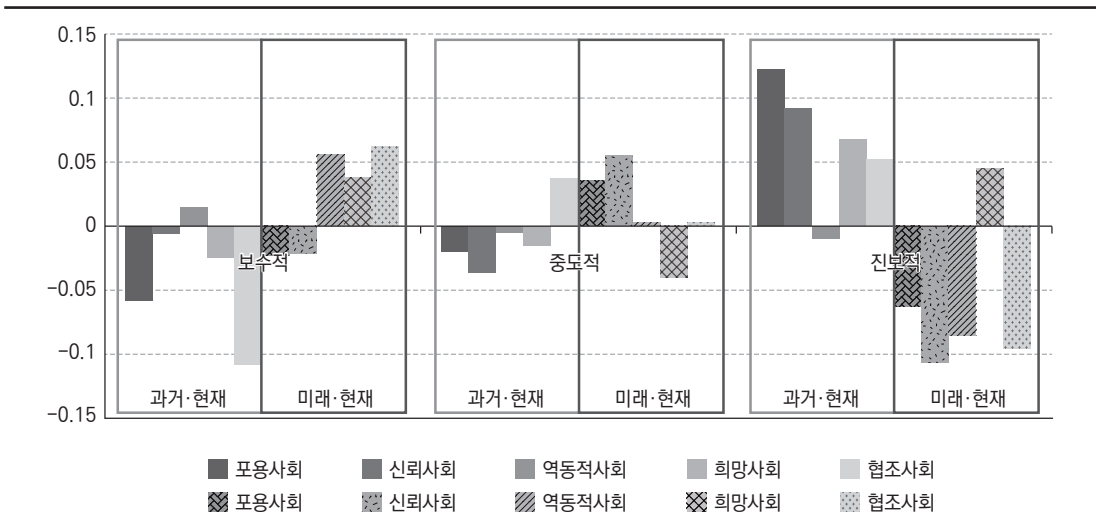
첫째, 협조 사회인지에 대한 평가이다.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은 다른 이념 성향 집단에 비해 현재 대비 과거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밝은 편이었다. 이는 특히 협조 사회의 측면에서 두

드러졌다. 예를 들어 보수적 성향인 사람들 역시 현재 대비 과거 사회의 협조 정도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지만(현재 4.05점, 과거 5.13점으로 그 차이는 1.08점), 이러한 차이는 다른 집단들이 평균 1.19점 차이를 보인 것에 비해 적었다. 현재 대비 과거가 협조 사회였는지에 대해서는 중도적, 진보적 이념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 역동적 사회에 대한 평가이다. 이념

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과거 사회의 역동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진보적 이념 성향의 응답자들은 현재 대비 10년 전 상황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가진 이들은 반대 경향을 보였지만 역동적 사회에 대한 평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다른 항목에 비해 현재 사회의 역동성에 대한 평가에서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집단 역시 다른 집단과 비슷하게

과거 사회가 현재 사회보다 더 역동적이었다고 생각한 결과이다. 셋째, 희망 사회에 대한 미래 사회 예측이다. 진보적 이념 성향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미래 사회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는데, 희망 사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 결과는 진보적 이념 성향 집단이 현재의 희망 사회에 대한 평가를 매우 낮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에 대한 평가 3.58점, 미래에 대한 평가 4.19점).

그림 3. 한국 사회에 대한 시점별 비교 평가: 이념 성향별¹⁾



주: 1) 전체 평균 대비 집단별 상대 수준으로 제시하였음.
 2) '과거-현재'는 과거 상황에 대한 평가치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한 값임.
 3) '미래-현재'는 미래 상황에 대한 평가치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3. 사회통합 국민 인식: 하위 요소의 중요도를 중심으로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사

회통합의 조건에 대해 질문하였다. 설문은 사회 통합이 잘되기 위한 각각의 요소별로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설문의 구조상 그 결과는 각 개인의 인식 구조에 근거한 조건부 응답일 수 있

다. 왜냐하면 사회통합의 특정한 조건(예를 들어 사회이동성)이 한국 사회에서 낮다고 판단하면 이것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조건부 응답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

회통합을 위한 각각의 요소는 모두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사회통합 하위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를 점수순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이동성과 관련된 네 문항(질문

표 2.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 평가

(단위: %, 점)

하위 영역	설문 내용	보통				매우 중요 (5)	평균 (점)
		(1)	(2)	(3)	(4)		
사회적 포용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2.51	6.08	19.6	43.83	27.97	3.89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1.53	3.99	18.89	38.63	36.95	4.05
	(3)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3.7	6.6	26.05	35.88	27.77	3.77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1.17	3.56	14.85	41.05	39.37	4.14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1.22	4.09	16.48	40.51	37.69	4.09
	(6)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이민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인정하는 것	4.27	9.54	26.97	38.27	20.95	3.62
사회적 자본	(7)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1.33	3.13	17.91	37.34	40.29	4.12
	(8)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3.14	4.8	21.19	37.61	33.26	3.93
	(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1.21	3.33	16.83	35.81	42.82	4.16
	(10)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1.49	3.28	15.46	37.22	42.56	4.16
	(11)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0.96	4.08	16.73	39.12	39.1	4.11
	(12) 사회 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1.76	5.21	21.84	39.51	31.68	3.94
사회 이동성	(13)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1.08	3.67	15.93	39.99	39.33	4.13
	(14)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0.49	2.25	9.83	33.88	53.55	4.38
	(15)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1.00	3.32	15.99	37.07	42.63	4.17
	(16)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0.52	2.44	10.04	33.81	53.19	4.37
갈등 관리	(17)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0.52	2.44	10.04	33.81	53.19	4.11
	(18)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1.79	4.33	19.89	42.18	31.81	3.98
	(19)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1.12	2.77	17.19	43.38	35.53	4.09

주: 설문지에서는 하위 영역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3.

13, 질문 14, 질문 15, 질문 16)에 대해 각각 평균 4.13점, 4.38점, 4.17점, 4.37점을 주는 등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자본 영역의 ‘질문 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질문 10.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은 각각 4.16점, 4.16점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그 외에 ‘질문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4.14점, ‘질문 7.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4.12점, ‘질문 11.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4.11점, ‘질문 17.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4.11점, ‘질문 19.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4.09점, ‘질문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4.09점, ‘질문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에 4.05점의 중요도 평가를 하였다.

앞서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사회통합 조건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집단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주관적 계층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하위 문항별 중요도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표 3>에서 왼쪽 열은 19개 문항에 대한 주관적 계층 집단별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질문 1.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층과 중상 및 상층의 중요도 평가가 유의한 수준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

이는 것,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등의 문항에서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러한 집단 간 중요도 평가의 차이를 살펴볼 때에는 집단 간 중요도 강조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건부 응답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의 하단에는 주관적 계층에 따른 각 항목 중요도 평가의 평균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관적 계층으로서 하층은 중상 및 상층의 중요도 평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0.2점을 더 주고 있다. 즉, 하층은 대부분의 요인에 대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각 하위 항목에서 계층별로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중간층, 중상 및 상층이 어느 항목을 더 강조하는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의 오른쪽 열은 전체 항목 응답 평균과 해당 항목 응답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질문 1.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통합에 중요한가에 대해 하층은 전체 항목 평균 대비 0.03점만 적게 부여하는 데 비해 중간층은 0.23점, 중상 및 상층은 0.28점을 적게 부여하고 있다. 즉, 주관적 계층이 상층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중상 및 상층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질문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질문 13. 충분한 교육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상 및 상층이 유의한 수준으로 차이하게 강조하는 조건으로 나타난다. 비록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질문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에

대해 중상 및 상층 집단은 전체 문항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 평가를 내렸으며, '질문 18.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표 3. 주관적 계층에 따른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 평가

(단위: 점)

구분	원자료값					평균과의 차이				
	주관적 계층				F (유의도)	주관적 계층				F (유의도)
	하	중하	중간	중상 및 상		하	중하	중간	중상 및 상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4.15	3.91	3.82	3.70	17.08 ***	-0.03	-0.19	-0.23	-0.28	9.31 ***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4.20	4.06	4.00	4.08	5.86 ***	0.03	-0.04	-0.05	0.09	3.03 *
(3)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3.78	3.80	3.76	3.72	0.46	-0.40	-0.30	-0.29	-0.26	2.34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4.27	4.16	4.10	4.03	5.89 ***	0.09	0.06	0.05	0.05	0.51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4.24	4.12	4.05	3.91	8.76 ***	0.06	0.03	0.00	-0.07	2.06
(6)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3.59	3.62	3.65	3.50	1.35	-0.58	-0.48	-0.40	-0.48	6.61 ***
(7)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4.22	4.13	4.09	4.03	3.3 *	0.05	0.03	0.04	0.05	0.09
(8)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3.98	3.90	3.95	3.84	1.5	-0.19	-0.20	-0.10	-0.14	4.53 **
(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4.26	4.17	4.13	4.07	3.42 *	0.09	0.07	0.08	0.09	0.08
(10)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4.26	4.17	4.13	4.11	2.86 *	0.08	0.08	0.08	0.13	0.45
(11) 사회 구성원이 (~)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4.28	4.12	4.08	3.99	7.28 ***	0.10	0.02	0.03	0.01	2.44
(12) 사회 구성원이 (~)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4.07	3.95	3.91	3.84	4.06 **	-0.11	-0.15	-0.14	-0.15	0.46
(13)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4.18	4.16	4.09	4.13	2.2	0.00	0.06	0.04	0.15	3.1 *
(14)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4.50	4.43	4.31	4.29	10.09 ***	0.32	0.33	0.26	0.30	3.48 *
(15)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4.21	4.20	4.14	4.10	1.61	0.04	0.10	0.10	0.12	1.27
(16)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4.43	4.42	4.32	4.25	6.4 ***	0.25	0.32	0.27	0.26	2.63 *
(17)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4.18	4.13	4.08	3.99	3.02 *	0.00	0.03	0.03	0.00	0.69
(18)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4.09	3.99	3.96	3.83	4.67 ***	-0.08	-0.11	-0.09	-0.16	0.99
(19)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4.20	4.11	4.06	4.00	4.16 **	0.03	0.01	0.02	0.02	0.22
평균	4.18	4.10	4.05	3.98	7.04 ***					

주: 1) 오른쪽 열의 평균과의 차이는 전체 19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과 해당 문항의 차이를 의미함.

2) * p < .05, ** p < .01, ***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5.

4.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의 집단 간 차이

가. 군집의 구분과 군집 특성

이 글의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사람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해 경제적 형평성을 강조하거나 주어진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사회를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지금까지 살펴본 주관적 계층, 이념적 성향 등 각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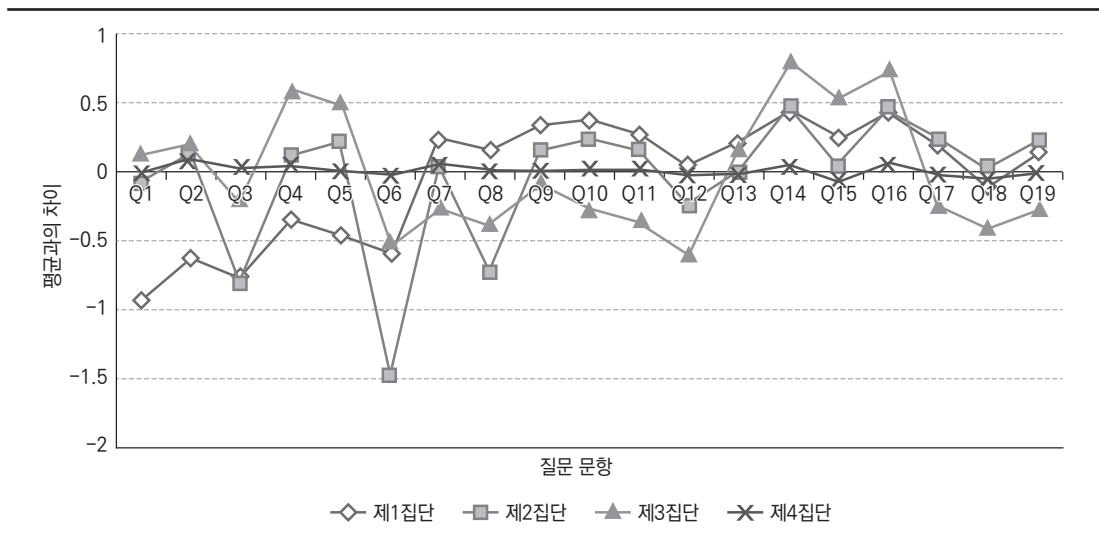
이에 따라 사회통합의 조건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기준으로 인식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하였다. 분석에는 앞서 <표 3>의 우

항과 같이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적인 응답치를 개별 응답치에서 제외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개별 응답에 대한 상대적 강조로 해석할 수 있다. 계산된 상대적 중요도 값을 이용해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증을 한 결과 4개의 집단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는 이 기준에 의해 도출된 4개 집단의 항목별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4집단(N=1,861)은 준거집단으로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균등하게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제1집단(N=579)은 2, 3집단에 비해 질문 7부터 질문 12(사회적 자본 영역)에 대해 일관성 있게 높은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집단은 경제적인 격차를 줄인다거나 하는 사회

그림 4.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 평가에 따른 집단 평균값



주: 집단별로 전체 응답값에 대한 평균과 해당 질문 문항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음. 즉, 문항별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하는 것임.
 자료: 정해식, 김미근,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58.

적 포용성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

제2집단(N=741)은 ‘질문 3.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질문 6.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질문 8.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질문 12. 사회 구성원이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낮은 중요도를 부여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질문 3을 제외하면 이들 문항은 규범적 차원에서의 사회통합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의 여러 개념 정의 중에서 가장 확장된 개념으로서 사회통합을 측정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 질문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제2집단은 ‘협소한 의미의 사회통합’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3집단(N=488)은 ‘질문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질문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질문 14.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질문 15.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질문 16.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는 집단이다. 또한 이들은 질문 7부터 질문 12의 사회적 자본 영역에 해당하는 요소에는 중요도를 낮게 부여한다. 즉, 이 집단이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는 가치의 핵심은 공정한 분배를 이루는 것에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평균적 집단 외에 한국 사회 사회통합의 조건에 대해 상이한 강조점을 갖는 세 집단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경제적 문제보다는 서로 신뢰하고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

해야 한다는 보수적 가치를 가진 집단이 있다. 둘째,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생의 가치보다는 사회적 이동을 강조하는 집단이 있다. 셋째, 현재의 분배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집단이 있다. 물론 이들 세 집단 모두가 질문 13부터 질문 16에 해당하는 ‘사회 이동성’에 강하게 가치 부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군집별 주요 사회경제적 특징

상이한 사회적 인식의 준거로서 사회경제적 원인을 찾기 위해 이하에서는 각 군집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4>는 간단하게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집단 구분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일부는 집단 구분을 단순화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평균과 비교해 제4집단 대비 1, 2, 3집단 모두는 사회통합 평가와 우리 사회에 대한 다섯 가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제1집단은 보수적인 가치를 지닌 집단이다.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주관적 계층으로는 중간층 및 이상, 사회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생활 수준은 평균적인 집단보다 양호해졌지만 삶에 대한 만족은 낮은 편인 집단이다. 이념적 성향으로도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제2집단은 협소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집단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50대 이상의 고령, 고졸 이하 학력, 주관적 계층으로는 하층 또는 중하

층인 비율이 평균보다 높다. 이들은 이념적으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도에 몰려 있다. 제3집단은 분배 공정성을 적은 집단이다. 이념적으로는 진보적 가치를 핵심 가치로 하는 집단이다. 젊고, 최근 생활수준 지고 있다. 의 개선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이동의

표 4. 각 집단의 사회통합에 대한 평가와 사회경제적 특징

(단위: 점, %)

구분		제1집단	제2집단	제3집단	제4집단	평균
사회통합 평가(평균)		3.82	3.95	3.95	4.45	4.18
포용 사회 인식(평균)	현재 기준	3.63	3.73	3.65	3.90	3.79
신뢰 사회 인식(평균)		3.58	3.68	3.58	3.97	3.80
역동적 사회 인식(평균)		3.82	3.93	3.97	4.14	4.03
희망 사회 인식(평균)		3.59	3.57	3.60	3.94	3.76
협조 사회 인식(평균)		3.54	3.69	3.79	4.03	3.85
성별	남	49.25	51.55	49.28	48.26	49.47
연령	50대 이상	38.26	44.21	34.69	38.46	39.08
학력	대졸 이상	44.36	38.18	40.8	39.59	40.24
주관적 계층	하층	9.46	16.73	12.42	12.37	12.79
	중하층	35.85	39.14	38.1	36.6	37.2
	중간층	48.49	39.31	43.99	45.69	44.63
	중상층, 상층	6.21	4.82	5.49	5.34	5.39
생활수준 변화	좋아짐	34.61	27.22	25.43	28.09	28.61
사회이동 가능성	높음	45.98	41.7	37.52	41.57	41.76
삶의 만족	보통 이상	54.52	57.39	59.12	60.44	58.69
사회 신뢰	보통 이상	27.56	21.73	19.23	34.84	28.91
이념 성향	보수적	31.95	30.15	26.58	26.12	27.94
	중도적	47.81	50.34	48.56	53.26	51.15
	진보적	20.25	19.51	24.86	20.62	20.91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0.

5. 나가며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한 조건을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가지는 사람을 이해하며 공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판단 기준에서 사회통합의 가치상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은 국민의 인식 구조를 밝히고, 그것의 차이를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정책 현안을 가로지르는 함의를 던지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통합은 단일한 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개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분석은 서로 신뢰하고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보수적 가치를 가진 집단,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생의 가치보다는 사회적 이동에 강조를 두는 집단, 분배 공정성을 강조하는 집단 등으로 크게 구분됨을 밝혔다. 물론 이러한 인식상의 차이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나 적어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정도를 확인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인식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방향의 소통 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통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의 현안은 사회이동성 제고이다. 집단 구분하에서 어느 집단이든 사회이동성을 측정하는 하위 요소를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주관적 계층 구분으로 하층인 집단에서 미래가 ‘희망 사회’일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를 둘러싼 우울한 관측치들이 다시금 확인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하층 집단의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